데스크시각

시립예술단, 변해야 산다

김미은
문화1부장

지난 6월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수원시향의 창단 30주년 공연을 보며 무척 부러웠다. 지역 교향악단이 9개 도시 순회공연을 진행하는 건 드문 일이다. 솔직히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서울시향이나 KBS 교향악단이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똑같은 '지방' 교향악단이다 보니 자존심도 조금 상했다.

몇달 후에는 더 배 아픈 소식이 들렸다. 수원시향이 주최하는 수원국제음악제에서 길샤함, 미샤 마이스키, 신영옥이 협연무대를 가진 것이다. 연말에는 마지막 강력한 한방이 터졌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과의 협연소식이었다.

12월말 같은 장소에서 열린 광주시향의 공연. 이날 시향은 시립무용단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협연 파트너로 참여했다. 공연장 입구에서 단원들로부터 종이 한 장을 받았다. 상임지휘자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었다. 불이 꺼지고 공연이 시작됐지만 연주를 듣는 내내 마음은 불안했다. 한창 다툼중인 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이 좋을 리가 없었다. 공연을 다녀온 지인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감동을 받을 준비를 하고 갔는데 파티가 시작되기도 전에 김이 빠진 꼴이었다고 했다. 관객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공연 후에 유인물을 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덧붙였다.

수원시향 랑랑 등과 협연

무엇보다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좋은 연주'를 들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요즘처럼 광주시립예술단체에 관심이 집중된 적이 없다. 아쉽게도 내용은 모두 부정적이다. 예술감독 선임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불공정 오디션과 연주 실력 질적 하락 등을 이유로 교향악단원들은 지휘자의 연임을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단체를 관리하는 행정 조직의 행태는 무능력에 가깝다. 예술감독, 단원들의 실력과 작품 수준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도 들려온다.

예술감독 선임 잡음은 고질병중 하나다. 특정인 내정설, 로비설 등은 단골 레퍼토리다. 특히 지역 출신 후보자들이 붙었을 때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소문들이 무차별적으로 들려온다. 이번에도 감독이 정해지기도 전에 "낙점자가 문예회관 근처로 아파트를 옮겼다더라" 등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여기에 올해는 채용 공고 수정 등 심사 절차상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정인 꿰맞추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각종 '설'의 주인공이 수장으로 부임했을 때 단원들은 그들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불투명한 예술감독 선임은 작품의 질로 연결돼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광주시가 뼈아프게 새겨야할 대목이다.

취재 중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자기계발 노력이 없는 일부 단원들의 안일한 태도였다. 형식적인 오디션 제도가 이같은 분위기를 부추긴다는 의견도 많았다. 시립예술단 노조가 등장하면서 이들이 노조 방패 뒤에 숨어버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어쩌면 모든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예술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일 수도 있다. 시와 문예회관, 예술감독, 단원들이 곪았던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 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이 돋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일단 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급선무다. 2009년 광주시향의 비약적 발전은 연봉을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 유능한 지휘자를 섭외한 데서 출발했다. 현재 예술단원 월급 수준은 6대 광역시 중 최하위다. 예술단별 단원 수도 가장 적다. 단원들의 자성도 필요하다. 많은 불합격자가 나왔던 지난해 오디션에 대해 분명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

시립예술단 발전 모델로 꼽히는 대전은 시립예술단체 1차(2003~2009), 2차(2010~2014)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대전시향의 유럽 4개국 투어는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뤄졌다.

현재 시는 시립예술단 중장기 발전안을 마련중이다. 예술감독 선임과 평가, 오디션 제도, 조직 구성 등 다양한 안을 놓고 이해관계를 떠나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하는게 필요하다.

시립예술단의 존재 이유는 시민에게서 나온다. 시민들에게 냉담한 반응을 얻는다면 100억이 넘는 세금을 들여 예술단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시립예술단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대표브랜드, 광주시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mekim@kwangju.co.kr

社 說

복지사각이 부른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

순천시 주암면 한 주택에서 13일 80대 할머니가 숨진 지 4일 만에 발견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 할머니는 저온 상태로 켜진 전기장판 위에 누워 숨져 있었다. 월 9만5000여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온 할머니는 국가에서 마련한 '사랑의 집'에 살았고, 노인 돌봄서비스는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지난 11일에는 B(69) 할머니가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것을 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평소 고혈압 증세를 보인 할머니는 3일 전에 남편의 제사를 치른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동구에 사는 C(79) 할머니도 지난 2일 집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됐다. '황혼의 외로운 죽음'이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평균수명이 75세를 넘어선 초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11만4649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36만6524명의 31.2%에 이른다. 전체 노인 3명 중 한 명 꼴로 혼자 살고 있는 셈이다. 광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질병과 빈곤, 고독에 시달리면서 죽음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정작 필요한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은 찾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극히 열악하다.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돌봄서비스 인력만 하더라도 시·군별로 26명 등 662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혜택을 보는 독거노인은 1만7000명 뿐이며, 나머지 10만여 명은 사실상 방치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는 다양한 의료혜택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질병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한다. 지자체 역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무원 '복지비 인상' 혈세로 잇속 챙기다니

광주 각 자치구들이 직원들의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를 대폭 인상해 비난을 사고 있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 구청들이 재정난은 나 몰라라 한 채 직원들의 복지비를 올려 잇속 챙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구청들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올 복지포인트 평균 지급액은 128만 원(128포인트)으로, 지난해 117만 원보다 9.7%나 인상됐다. 구별로는 서구와 광산구가 각각 11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무려 18.18%를 올렸으며 북구 3.84%(130만→135만 원), 동구는 8.33%(120만→130만 원) 인상했다. 남구는 지난해와 같은 115만 원으로 동결했다.

이는 행안부의 복지포인트 상한액 149만2000원은 넘지 않았지만 여타 구청·기관들과 비교해서 높은 수치다. '행안부 집계 복지포인트' 중앙공무원 57만 원, 강원도 양구군 60만 원 등보다 2배 이상 높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이 연금매장이나 병원·휴양시설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급여나 다름없다. 그래서 연봉 '편법 인상'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게다가 일반 직장인과 달리 세금 등의 부과 대상도 아니어서 공무원 특권의 상징이 되고 있다.

광주 구청들은 평균 재정자립도가 19.4%로 전국 평균 52.3%에 훨씬 못미치는 등 재정난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도 올 직원 복지포인트 예산을 대폭 올려 자치구마다 10억 원 가까이 쏟아붓는다니 뻔뻔하기 그지 없다.

구청과 구의회는 어려운 곳간 사정을 감안, 더 이상 선심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주민들도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한통속이 돼 복지포인트를 과다 지급하지 못하게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혈세로 잇속을 챙기는 건 주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은펜칼럼

행정의 결과는 건축이고, 경쟁력이다

박홍근
건축사·전남대 겸임교수

부산엔 혈육과 지인들이 사는 관계로 가끔 간다. 연초에도 그곳에 갈 일이 생겨 덤으로 어디를 더 가볼까 생각을 하다가 극과 극의 장소를 선택했다. 감천동 집단주거 마을과 센텀시티의 주상복합단지다. 한곳은 오직 생존을 위해 자연스레 형성되어진 곳이고, 다른 한곳은 부동산 가치와 있는 자들의 머니게임을 통해 아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감천동은 2009년부터 다양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오늘의 '감천문화마을'이 됐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근현대사의 흔적과 기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역사적 계기와 함께 천마산에 이르는 산자락을 따라 지형적 특성에 맞게 질서 정연하게 조성된 단층과 2층 집단주거지다. 뒷집의 전망과 사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지어졌으며, 독특한 매력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문화적 가치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해운대의 센텀시티는 부산의 맨하튼이라 지칭되는 장소다. '100% 완벽한 최첨단 미래도시를 지향한다'라는 목표로 계획된 단지다. 이곳은 산업용지, 상업시설뿐 아니라 주거단지가 있어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미래단지를 꿈꾸고 만들어졌다. 단지 안의 주거는 초고층 주상복합이며, 유리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다. 외부에서 보면 모두가 좋은 조망과 환경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연에 대응하며 기계에 의존하는 주거들이다.

두 곳은 공통점과 다름이 있다. 공통점은 그 당시 필요로 한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삶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고,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잘(?) 살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점은 한곳은 무계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은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인간적 크기에 맞게 만들어진 곳이고, 한곳은 전문가들의 계획에 따라 거대한 크기로 완성되었지만 어딘지 낯설다는 점이다.

자연의 일부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만한 곳은 어딜까? 이를 판단하는 가치기준도 그들의 연령과 자산과 하는 일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허나 세월이 흐른 뒤 오랫동안 기억하며 추억할 수 있는 곳, 문화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곳, 사람냄새가 나는 자연스런 곳은 보이지 않은 질서 속에서 다양한 군상들의 손때가 묻은 주거지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감천동은 2009년부터 예술가와 행정의 노력에 의해 '문화마을'로 재탄생 한 곳이다. 센텀시티의 '미래 주거단지'는 2000년대부터 자본가와 행정에 의해 만들어진 초고층 주상복합주거다.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그 당시 결정된 행정의 결과물들이다. 행정의 주체는 사람이고 이는 공무원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도시가 만들어지고 삶의 공간들이 조직되는 데는 행정의 역할이 가장 클 수밖엔 없다. 행정의 결과는 건축으로 나타나며, 행정력의 결과는 삶의 질을 결정하고 한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러니 살맛나는 도시와 지역 발전은 행정과 행정력에 달려있고, 행정의 책임자인 지자체 장의 몫이 가장 큰 이유다.

기 고

돈 버는 농업으로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박민수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

질긴 생명력과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임진년은 연이어 휩쓸고 간 태풍 피해와 국제 곡물가 상승, 한·미 FTA 발효 등 우리 농업과 농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해였다. 그러나 농업현장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주신 농업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뱀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는다고 한다. 인간도 낡은 사고의 허물을 벗지 않으면 늘 제자리걸음뿐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다. '돈 버는 농업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인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한해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유기농 생태전남 농업실현과 3농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술개발 보급체제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목표 달성을 위한 저투입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보급이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전남은 친환경 농업을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난해는 전국 친환경 농산물의 61%를 점유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했다. 이러한 결과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도정 철학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결합해 이룬 성과이다. 올해에도 친환경농업의 생산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과제 연구와 농업인이 손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토착 미생물 활용교육을 강화하겠다.

둘째 전남 쌀 품질고급화와 안정 생산이다. 지난해는 태풍피해로 전남 쌀 생산 감소폭이 컸으나 그동안 고품질 품종 육성과 품질향상 기술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전국 12대 브랜드 쌀'에 전남브랜드 쌀이 4개나 선정됐다. 올해는 밥맛이 좋은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최고급 브랜드 쌀 생산단지와 특수 기능성 쌀 단지 조성, 조생종 벼 조기재배 등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셋째 FTA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화작목을 육성하겠다. 외국 농산물과 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품목과 품질의 차별화가 선결과제다. 해남의 세발나물, 여수의 잎방풍 등은 지역의 토종작물을 소득화하는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시·군별로 자생하는 토종작물을 발굴해 소득화하고 비교우위 품목을 규모화, 브랜드화해 소득을 높이는 지역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넷째 유용곤충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향상이다. 곤충산업은 농산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국내시장 규모도 2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곤충산업을 단순한 애완용, 학습용에서 벗어나 곤충의 유용물질을 분석해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가축사료와 약리용 신소재 개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돈 버는 농업 전문기술교육이다. 동일한 작목에서도 농가 기술력에 따라 소득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한 생명농업대학, 품목별 전문교육 등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단계별 영농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섯째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성공개최이다. 농업박람회는 농업의 중요성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린농식품, 행복한 소비자'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농업박람회는 보고, 체험하고, 사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농업박람회로 개최하겠다.

이와 같이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생명산업인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소비자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새해의 농업은 지난해 못지않게 힘들고 바쁜 해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창의·혁신 그리고 도전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농심으로 하나 돼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간다면 농업인과 도민 모두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오는 한해가 되리라 생각한다. 계사년을 맞아 뱀같이 지혜롭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돈 버는 농업'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無 等 鼓

선자불래(善者不來)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의 재상 범려가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충실했던 사냥개도 쓸모가 없어져 삶아 먹게 된다.'라고 말한데서 비롯된 토사구팽(兎死狗烹)은 인지상정일 뿐만 아니라 권력자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도의 정략(政略)으로도 통한다.

동양의 고전에는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운 한신이 결국엔 모략에 걸려 권력에서 밀려나는 이야기를 비롯해 토사구팽의 사례가 여기저기 실려 있으며, 서양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

아즈텍왕국을 정복, 몬테주마 왕으로부터 빼앗은 황금과 예술작품 등 엄청난 보물을 스페인 궁정에 바쳤던 에르난 코르테즈가 아무런 실속도 챙기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도 토사구팽의 전형적인 사례다. 코르테즈가 말년에 군중 틈을 뚫고 왕의 수레로 다가간 일화는 유명하다.

갑자기 나타난 코르테즈에게 놀란 왕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러자 코르테즈가 답했다. "폐하의 선조가 폐하께 도시들을 물려주었다면, 저는 폐하께 그보다 훨씬 넓은 식민지를 드린 사람입니다." 왕은 마부에게 재촉했다. "어서 가자."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가 서서히 윤곽을 갖춰 나가면서 '당선을 도왔다.'라는 인물들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의 고생이 수포로 돌아갈 듯 하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약속이나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국민감정을 감안하면 '목 빼고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이들이 한자리를 차지하기보단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명분으로 토사구팽될 가능성이 더 높은 듯하다.

불가에선 '선자불래, 래자불선'(善者不來 來者不善)이라는 격언이 전해온다. 좋은 사람은 먼저 다가오지 않고, 다가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데, 결국은 좋은 사람 만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결코 허튼소리가 아니다. 박 당선인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진다.

/홍행기 사회1팀장redplane@kwangju.co.kr

잎담배 생산농가 보호위해 수매가 인상해야

아버님이 시골에서 잎담배 농사를 지으신다. 어느 농가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담배농가도 너무 힘들다. 담배를 끊는 원인이야 건강을 생각해서이므로 달리 말할 게 못되지만, 정말 힘들게 하는 원인은 바로 수입산 잎담배 때문이다.

담배 판매액이 1년에 10조원대라고 한다. 정말 말로 가늠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다. 또 이런 판매액에 따라 정부에서 걷는 세금 역시 작년에만 무려 7조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수익을 뒷받침해주는 담배 재배농가들의 수익이나 생활 사정은 어떨까.

지금 잎담배 재배농가들의 실상은 굳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 그다지 돈이 안 되니 우리나라 담배 재배면적은 날이 갈수록 급감해서 현재는 잎담배 생산액도 1년에 고작 930억원정도라고 한다. 이는 담배농가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 담배제조사들도 국산 잎담배를 사용하기보다는 가격이 싼 수입산 잎담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판매용 담배의 국산 잎담배 사용비율은 40% 정도이고 나머지는 수입하고 있다.

특히 국내 담배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 현재 담배산업은 기획재정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잎담배 농가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보다는 완성된 담배의 판매, 유통 쪽으로만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잎담배 재배농가들로부터 수매하는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하는 담배에는 50% 이상 국산 잎담배를 사용하도록 해야 옳다. 그리고 담배로 인해 생기는 정부나 기업의 소득 중 일정액을 국내 담배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잎담배 생산농가에 환원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경·광주시 북구 태령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